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TRADE FOCUS

2016년 7호

한미 FTA 4주년 평가와 시사점

2016.3

통상연구실 박지은 수석연구원
정혜선 연구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iit.kita.net

CONTENTS

[요 약]	i
I. 최근 對美 무역 동향	1
1. 수출입동향	1
2. 수출 다양도 및 집중도 분석	3
II. 한미 FTA 수출 성과 분석	5
1. 총괄	5
2. 각 산업의 FTA 수출 성과 분석	8
3. FTA 활용률 분석	11
III. 한미 FTA 이후 對美 수입 현황	13
1. 총괄	13
2. 승용차	14
3. 농축수산물	15
IV. 한미 FTA 수출 유망품목	18
V. 결론 및 시사점	20

□ 보고서 내용 문의처
박 지 은 수석연구원
정 혜 선 연구원

(☎ 02-6000-5342, jieunpark@kita.net)
(☎ 02-6000-5344, hsjung1110@kita.net)

[요 약]

세계 경기 둔화, 유가 하락 등 악화된 대외 여건 속에서도 2015년 한국의 대미 수출은 FTA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출 성과를 달성하였다. 미국의 수입통계를 기준으로 한국의 수출성과를 분석한 결과, 발효 4년 차인 2015년 FTA 수혜품목의 수출은 5.1% 증가하여 일본(-7.8%), 중국(4.2%)에 비해 양호한 수출 성과를 보였다. 이는 FTA 수혜품목으로 본 미국 전체 증가율(-11.9%)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FTA 수혜품목 중에서는 전기전자(12.5%), 기계(12.4%), 고무(11.3%), 농수산물(12.9%) 산업에서 두 자릿대의 증가율을 보이며 수출 증가를 주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5년 한국의 대미 수출은 업체수 및 품목수가 증가하여 FTA가 우리 수출의 외연적 확대에 기여하였다. 국내 대미 수출업체는 33,997개사로 전년 대비 540개사가 순증하였으며, FTA 발효 이후 매년 평균 약 15,000개사가 신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 수출 활용률은 발효 2년차부터 70% 이상을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지난해 활용률은 71.1%로 전체 수혜가능 품목의 수출총액 235.5억 달러 중 167.5억 달러가 FTA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 부품(FTA 활용률 84.9%), 고무 타이어(99.5%) 등의 품목에서 활용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각각 2.5%, 4%의 관세율 철폐가 대미 수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대미 수출을 늘려나간 결과, 우리의 미국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증가세를 지속해 2015년 3.20%로 2000년(3.31%)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더불어 우리의 대표 경쟁국인 일본과의 시장 점유율 격차는 사상 최저치(2012년 3.85%p → 2013년 3.37%p → 2014년 2.74%p → 2015년 2.65%p)로 좁혀졌다.

한편,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승용차, LPG 등 일부 품목의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품목인 곡물, 사료, 의약품 등의 수입이 줄어들며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승용차의 대미 수입은 국내 소비자들의 수입차 선호 확산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1일부터 승용차에 대한 관세 철폐(4%→0%)가 예정되어 있어 수입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당초 우려했던 농축수산물 수입은 전년 대비 10.3% 감소하였으며, 국내 생산이 부족한 일부 품목(아보카도, 와인 등)에서 수입이 증가하여 소비자의 선택폭 확대와 후생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에는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예상됨에 따라 한미 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미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승용차의 2.5% 관세가 올해부터 철폐됨에 따라 승용차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승용차 뿐 아니라 자동차 부품, 산업용 보일러, 밸브 등 중소기업 수출 품목에서도 FTA를 통한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 문

I. 최근 對美 무역 동향

1. 수출입 동향

- 2015년 한국의 대미 무역액은 -1.5% 감소한 1,138.6억 달러 기록
- 수출은 전년 대비 -0.6% 감소한 698.3억 달러, 수입은 -2.8% 감소한 440.2억 달러 기록
- 2015년 대미 무역수지는 258.1억 달러 흑자로 전년 대비 8.1억 달러 증가

〈 최근 한국의 대미 무역 동향 〉

(단위 : 억 달러,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1월
수출	376.5	498.2	562.1	585.2	620.5	702.8	698.3	50.4
(증가율)	(-18.8)	(32.3)	(12.8)	(4.1)	(6.0)	(13.3)	(-0.6)	(-9.3)
수입	290.4	404.0	445.7	433.4	415.1	452.8	440.2	33.2
(증가율)	(-24.3)	(39.1)	(10.3)	(-2.8)	(-4.2)	(9.1)	(-2.8)	(-8.3)
무역	666.9	902.2	1,007.8	1,018.7	1,035.6	1,155.7	1,138.6	83.7
(증가율)	(-21.3)	(35.3)	(11.7)	(1.1)	(1.7)	(11.6)	(-1.5)	(-8.9)
수지	86.1	94.1	116.4	151.8	205.4	250.0	258.1	17.2

주: ()는 전년동기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 한국의 대세계 수출이 -8.0%로 부진한 가운데 대미 수출은 -0.6%를 기록하여 여타 지역에 비해 낮은 감소율을 나타냄

〈 최근 한국의 주요국 수출 동향 〉

(단위 : 억 달러,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미국	562.1	12.8	585.2	4.1	620.5	6.0	702.8	13.3	698.3	-0.6	50.4	-9.3
중국	1,341.9	14.8	1,343.2	0.1	1,458.7	8.6	1,452.9	-0.4	1,371.2	-5.6	94.8	-21.6
아세안	718.0	35.0	791.5	10.2	820.0	3.6	845.8	3.1	748.2	-11.5	51.3	-20.6
EU	557.3	4.1	493.7	-11.4	488.6	-1.0	516.6	5.7	480.8	-6.9	38.3	7.2
일본	396.8	40.8	388.0	-2.2	346.6	-10.7	321.8	-7.2	255.8	-20.5	18.3	-18.7
세계	5,552.1	19.0	5,478.7	-1.3	5,596.3	2.1	5,726.6	2.3	5,267.6	-8.0	366.2	-18.8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 대미 수입은 FTA 발효 직후인 2012~2013년 감소세에서 2014년에는 증가(9.1%)로 돌아섰으나 2015년 중 다시 감소세로 전환
 - 2015년 대미 수입액은 2.8% 감소하여 전체 수입(-16.9%)에 비해 낮은 감소폭을 시현

〈 최근 한국의 주요국 수입 동향 〉

(단위 : 억 달러,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미국	445.7	10.3	433.4	-2.8	415.1	-4.2	452.8	9.1	440.2	-2.8	33.2	-8.3
중국	864.3	20.8	807.8	-6.5	830.5	2.8	900.8	8.5	902.5	0.2	68.9	-15.4
아세안	531.2	20.5	519.8	-2.2	533.4	2.6	534.2	0.1	450.3	-15.7	33.4	-19.0
EU	474.2	22.5	503.7	6.2	562.3	11.6	623.9	11	572.0	-8.3	45.6	-5.0
일본	683.2	6.3	643.6	-5.8	600.3	-6.7	537.7	-10.4	458.5	-14.7	30.9	-19.2
전 세계	5,244.1	23.3	5,195.8	-0.9	5,155.9	-0.8	5,255.1	1.9	4,365.0	-16.9	314.2	-20.0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 품목별로는 승용차, 자동차 부품, 무선전화기 등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으며 수입은 집적회로반도체, 반도체제조장비, 항공기 및 부품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
 - 수출 증가 품목 : 승용차(19.3%), 타이어(8.9%), 냉장고(3.2%)
 - 수출 감소 품목 : 건설중장비(-8.8%), 무선전화기(-6.4%), 원동기(-5.4%)
 - 수입 증가 품목 : 승용차(32.6%), 항공기부품(7.0%), 가축육류(7.7%)
 - 수입 감소 품목 : 집적회로반도체(-1.6%), 사료(-32.4%), 의약품(-2.5%)

〈 한국의 대미 수출입 품목 현황 〉

(단위 : 억 달러, %)

수출					수입				
품목	2014년	2015년			품목	2014년	2015년		
	금액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금액	증가율	비중
승용차	147.1	175.5	19.3	25.1	집적회로반도체	38.2	37.5	-1.6	8.5
자동차부품	66.1	65.7	-0.6	9.4	반도체제조용장비	19.7	19.7	0.2	4.5
무선전화기	66.7	62.6	-6.1	9.0	항공기	7.5	19.6	162.0	4.4
집적회로반도체	24.6	24.8	0.7	3.6	항공기부품	12.2	13.1	7.0	3.0
제트유 및 등유	23.7	22.8	-4.1	3.3	가축육류	11.7	12.6	7.7	2.9
타이어	12.8	13.9	8.9	2.0	승용차	9.1	12.1	32.6	2.7
원동기	12.2	11.6	-5.4	1.7	사료	15.1	10.2	-32.4	2.3
냉장고	10.6	11.0	3.2	1.6	기타정밀화학제품	8.9	10.2	14.3	2.3
건설중장비	11.2	10.2	-8.8	1.5	의약품	10.4	10.1	-2.5	2.3
항공기부품	8.9	9.3	4.9	1.3	기타정밀화학원료	9.5	10.1	5.8	2.3
소계	383.9	407.3	6.1	58.3	소계	142.3	155.2	9.1	35.2
전체	702.8	698.3	-0.6	100.0	전체	452.8	440.2	-2.8	100.0

주: MTI 4단위 기준,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2. 수출 다양도 및 집중도 분석

(1) 대미 수출업체 및 품목수 변화

■ 국내 대미 수출업체는 2015년 기준 33,997개사로 전년 대비 540개사가 순증하였으며 수출 품목수는 6,081개로 전년 대비 115개 증가함

- FTA 발효 이후 매년 평균 약 15,000개사가 미국 수출시장에 신규 진입
- 품목수는 연평균 5,900개로 FTA 발효 이후 꾸준히 증가세 보이며 지난해 전년 대비 115개 품목이 증가하여 대미 수출의 외연적 확장에 기여¹⁾

〈 업종별 대미 수출 업체수 및 품목수 현황 〉

(단위 : 개사, 개)

	수출 업체수						수출 품목수					
	2011년 (발효 전)	2012년 (1년차)	2013년	2014년 (a)	2015년 (b)	증감 (b-a)	2011년 (발효 전)	2012년 (1년차)	2013년	2014년 (a)	2015년 (b)	증감 (b-a)
농림수산물 ²⁾	1,043 (941)	1,168 (959)	1,461 (980)	1,658 (989)	1,356 (1,100)	-302 (111)	640	747	767	783	816	33
광산물	96	88	101	87	94	7	106	105	103	97	109	12
화학제품	1,699	1,761	1,858	1,934	2,096	162	885	942	921	966	989	23
플라/고무/가죽	1,340	1,435	1,439	1,389	1,435	46	213	213	214	215	212	-3
섬유류	2,110	2,227	2,295	2,378	2,489	111	700	744	769	753	786	33
생활용품	1,385	1,499	1,568	1,633	1,650	17	359	366	375	372	390	18
철강금속	1,187	1,207	1,216	1,277	1,323	46	475	478	520	525	521	-4
기계류	6,473	6,921	6,925	7,233	7,459	226	1,135	1,131	1,157	1,179	1,185	6
전기전자	4,757	4,799	4,876	4,953	4,977	24	893	916	940	937	936	-1
잡제품	8,001	10,134	11,494	10,915	11,118	203	135	132	138	139	137	-2
합계	28,091	31,239	33,233	33,457	33,997	540	5,541	5,774	5,904	5,966	6,081	115
〈신규진입〉	—	<16,820>	<16,221>	<13,926>	<12,839>							

주: 1. 업체수는 사업자등록번호, 품목수는 HS 10단위, 업종은 MTI 1단위 기준

2. ()는 연간 1,000달러 이상 대미 수출업체

3. < >는 과거 대미 수출실적이 전혀 없고 당해 연도에 첫 수출한 순수 신규업체 수

자료: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1) HS코드 개정에 따른 품목수 증감을 포함한 수치로 실제 신규수출 품목 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2) 2015년 대미 농림수산물 수출업체는 총 302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샘플, 소액수출 등 일회성 수출이 대부분인 연간 1,000달러 미만 수출업체를 제외할 경우 111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 수출 다양도(Extensive margin) 및 집중도(Intensive margin)³⁾ 분석

■ 대미 수출액 변화를 수출 다양도 및 집중도로 분해한 결과 집중도 감소분이(-9.4억 달러) 다양도 증가분을(+4.9억 달러) 상회

- (다양도) 수출 신규기업(17,565개사)의 수출 증가액은 19.0억 달러로 수출 중단기업(17,025개사)에 의한 수출 감소액 14.1억 달러를 상회하여 다양도 측면에서 수출은 총 4.9억 달러 증가
- (집중도) 반면 수출 지속기업 분석 결과, 지난해에 비해 수출액이 9.4억 달러 감소하여 전반적인 집중도는 하락

〈 수출 다양도 및 집중도 변화(업체 기준) 〉

(단위 : 개사, 백만 달러)

		업체수	수출액		
			2014년(a)	2015년(b)	순증감(b-a)
다양도 (신규·중단 업체)	신규①	17,565	-	1,902	+1,902
	중단②	17,025	1,414	-	-1,414
	변화(①-②)	+540			+488
집중도 (지속 업체)	수출증가③	8,020	31,060	39,608	+8,548
	수출감소④	8,412	37,811	28,322	-9,489
	변화(③-④)				-941
전체		33,997	70,285	69,832	-453

자료: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 품목 기준에서는 집중도(-3.2억 달러)와 다양도(-1.4억 달러)가 모두 감소했으나 집중도 감소폭이 더 컸음

〈 수출 다양도 및 집중도 변화(품목수 기준) 〉

(단위 : 개, 백만 달러)

		품목수	수출액		
			2014년(a)	2015년(b)	순증감(b-a)
다양도 (신규·중단 품목)	신규①	820	-	146	+146
	중단②	705	282	-	-282
	변화(①-②)	+115			-135
집중도 (지속 품목)	수출증가③	2,618	35,349	43,728	+8,379
	수출감소④	2,643	34,655	25,958	-8,697
	변화(③-④)				-317
전체		6,081	70,285	69,832	-453

자료: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3) 본 보고서에서 수출 다양도(Extensive Margin)는 수출기업(품목)의 진입과 퇴출에 따른 수출 증가액을, 수출 집중도(Intensive Margin)는 수출 지속기업(품목)의 수출 증가액을 의미함

II. 한미 FTA 수출 성과 분석

1. 총괄

※ 품목별 FTA 수혜품목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수입통계를 이용하였으며, 본 보고서의 對美 수출은 미국의 對韓 수입을 의미함

■ 한미 FTA 발효 4년차인 2015년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3.2% 증가⁴⁾한 718.3억 달러 기록

● FTA 수혜품목 수출은 전년 대비 5.1% 증가하였으며, FTA 비수혜품목의 증가율(2.3%)을 상회

－ FTA 발효 이후, 지난 4년간 FTA 수혜품목 수출은 연평균 6.7%, 비수혜품목 수출은 5.8% 증가

〈 FTA 혜택별 대미 수출 증가율(미국의 대한 수입) 〉

(단위 : 억 달러, %)

	2012년(1년차)		2013년(2년차)		2014년(3년차)		2015년(4년차)		4년간 연평균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증가율
전체 품목	589.0	3.9	622.3	5.7	696.1	11.9	718.3	3.2	100.0	6.1
- 수혜	208.5	14.6	212.4	1.9	224.1	5.5	235.5	5.1	32.8	6.7
- 비수혜	380.4	-1.1	409.8	7.7	471.9	15.2	482.8	2.3	67.2	5.8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자료: USITC(<http://dataweb.usitc.gov/>)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 2015년 미국의 대세계 수입이 -4.4%를 기록하며 부진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미 수출은 FTA 효과에 힘입어 3.2% 증가

● FTA 수혜품목의 경우 미국의 대세계 수입 증가율이 -11.9%로 크게 감소한데 반해 한국의 대미 수출은 5.1% 증가율을 보이며 선전

4) 한국통계에서 2015년 한국의 대미 수출은 -0.6% 감소하였으나 미 상무성(US Department of Commerce)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대한 수입은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일정 기간에 대해 수출과 수입 통관 시점 차이, 멕시코 경유 우회수출 등에 따른 수출국(한국)과 수입국(미국) 간 통계 불일치에 기인

- FTA 수혜품목에 대한 일본의 대미 수출은 -7.8% 감소, 중국의 대미 수출은 4.2% 증가하여 한국의 증가율 5.1%를 하회함

〈 한미 FTA 이후 주요국의 대미 수출 증가율(미국의 수입) 비교 〉

(단위 :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수혜	비수혜	전체	수혜	비수혜	전체	수혜	비수혜	전체	수혜	비수혜	전체
한국	14.6	-1.1	3.9	1.9	7.7	5.7	5.5	15.2	11.9	5.1	2.3	3.2
일본	15.2	12.7	13.5	-7.6	-4.2	-5.4	-1.6	-4.2	-3.3	-7.8	0.9	-2.1
중국	6.6	6.5	6.6	4.5	2.7	3.5	5.3	6.4	6.0	4.2	2.6	3.3
대만	8.9	-13.1	-6.2	-0.5	-3.5	-2.4	5.8	7.7	7.0	7.3	-3.7	0.3
전 세계	1.4	4.7	3.0	-2.5	1.6	-0.4	0.5	6.1	3.5	-11.9	2.1	-4.4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자료: USITC(<http://dataweb.usitc.gov/>)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 2015년 한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3.20%를 기록하며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 한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0년 3.31%를 기록한 이래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나 FTA 발효 이후 꾸준히 확대되어 2015년에는 전년 대비 0.23%p 상승한 3.20%를 기록
-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일 간 점유율 격차는 발효 당시(2012년) 3.85%p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양국의 점유율 격차는 사상 최저치인 2.65%p까지 좁혀짐

〈 미국의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

(단위 : %, %p)

	2000년	2005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한국(a)	3.31	2.62	2.29	2.52	2.55	2.57	2.59	2.75	2.97	3.20
일본(b)	12.05	8.26	6.63	6.16	6.30	5.84	6.43	6.11	5.71	5.85
중국	8.22	14.57	16.08	19.03	19.07	18.09	18.70	19.43	19.90	21.50
대만	3.33	2.08	1.73	1.82	1.87	1.88	1.71	1.67	1.73	1.82
한일격차(b-a)	8.73	5.64	4.34	3.64	3.75	3.27	3.85	3.37	2.74	2.65

자료: 미 상무성(US DOC)

【 FTA 혜택별 수출 성과 분석방법 】

- 분석대상: 미국의 對세계,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품목별 수입 데이터
 - 품목별로 관세 인하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미국측 수입 데이터(USITC,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를 활용
 - ① FTA 수혜품목: 2012년 3월 15일 FTA 발효 이후 관세가 $n\% \rightarrow 0\%$ 로 철폐, TRQ(저율관세할당), 한미 FTA 양허안에 따라 인하되는 품목
 - ② FTA 비수혜품목: 원래 관세가 0%인 무관세 품목이나 일정기간 관세 인하철폐 유예품목(승용차, 화물자동차 등), 양허 제외 품목 혹은 기타품목
 - 경쟁국 대비 한미 FTA의 상대적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동일 기간에 대해 미국의 경쟁국에 대한 수입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 분석
- 분석기간: 2011년(FTA 발효 전), 2012년(발효 1년차)~2015년(발효 4년차)
- 분석방법: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의 對한국, 일본, 중국, 대만에 대한 품목별 수입 데이터(각 국의 대미 수출)와 한미 FTA의 미국측 상품 양허안을 연계하고, FTA 수혜품목과 비수혜품목으로 구분하여 한국의 FTA 수출 성과를 분석
- ※ 한미 FTA 양허안은 HS 2002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현재 HS 2012년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양허안과 수입 통계 데이터 연계시 일부 HS코드에 대해 불일치 문제 발생. 이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관세율 DB 및 HS코드 변경 이력을 종합하여 자료간 오차를 최소화

2. 각 산업의 FTA 수출 성과 분석

■ 2015년에는 전기전자, 기계, 가죽/고무/신발, 농수산물식품 등의 분야에서 FTA 수혜품목의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리 대를 기록

● (전기전자) 비수혜품목의 대미 수출이 전년 대비 -9.2%로 부진한 가운데 수혜품목 수출은 12.5% 증가하며 버팀목 역할을 수행

– 유압식 변압기(HS 850423), 전기제어용 보드/패널(HS 853710) 등의 수출 증가로 FTA 수혜품목 수출 증가율(12.5%)이 일본(-3.2%), 중국(5.6%), 대만(4.8%) 등의 경쟁국을 크게 상회

– 반면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휴대폰 및 부분품, 반도체 등 기존 무관세 품목의 수출 부진으로 전기전자 산업 전체의 대미 수출은 5.2% 감소

● (기계) 비수혜품목은 1.1% 감소한 반면 수혜품목의 수출은 12.4% 증가하여 경쟁국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임

– 특히 대형 증기발생보일러(HS 840211, 2.2억 달러)가 전년 대비 374.3% 증가하며 기계류 수출 증가에 기여

● (수송기계) 비수혜품목 수출은 17.6% 증가하였지만 자동차 부품을 포함하는 수혜품목의 수출은 1.9% 증가에 그침

– 비수혜품목⁵⁾인 승용차의 경우 일본의 점유율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인 반면 한국의 점유율은 FTA 발효 이후 상승세를 기록하며 점유율 격차가 축소

* 미국 승용차(HS 8703) 수입시장 점유율

(한국) 7.0%(‘11년) → 7.2%(‘12년) → 7.8%(‘13년) → 9.5%(‘14년) → 10.3%(‘15년)

(일본) 24.4%(‘11년) → 25.6%(‘12년) → 24.6%(‘13년) → 22.0%(‘14년) → 21.4%(‘15년)

● (가죽/고무/신발) FTA 수혜품목 증가율은 11.3% 증가하여 17.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타이어(HS 401110, 11.1억 달러) 수출이 18.2% 증가하여 수혜품목 수출 증가를 견인

5) 승용차는 2015년까지 비수혜품목으로 분류되었으나 올해부터 관세가 2.5% → 0%로 철폐

- (화학제품) FTA 수혜품목의 수출 증가율은 5.9%로 전세계 증가율(-0.3%)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일본(-18.7%), 중국(1.4%), 대만(2.1%)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농수산물식품) 수출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FTA 수혜품목 수출이 2012년 10.4% → 2013년 16.8% → 2014년 7.4% → 2015년 12.9%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임
- 담배(HS 240220, 0.9억 달러)가 전년 대비 52.6% 증가했으며, 라면 등의 인스턴트 면류(HS 190230, 0.4억 달러)도 6.4% 관세율이 발효 즉시 철폐되면서 연평균 20.8% 증가하여 전체 농수산물식품 수출을 주도

〈 산업의 FTA 혜택별 대미 수출 현황(미국의 수입)① 〉

		FTA 수혜품목(억 달러, %)			FTA 비수혜품목(억 달러, %)			전체(억 달러, %)		
		2년차	3년차	4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수송기계		43.0 (11.1)	45.6 (6.2)	46.5 (1.9)	130.3 (14.8)	155.6 (19.5)	183.0 (17.6)	173.2 (13.9)	201.3 (16.2)	229.5 (14.0)
	증가율									
	일본	-14.4	-4.1	-10.5	1.9	-7.0	5.8	-1.6	-6.5	2.7
	중국	5.6	17.8	11.9	-2.7	29.5	21.6	4.1	19.8	13.7
	대만	1.4	2.6	15.4	-2.6	1.8	-4.2	0.6	2.5	11.5
전기전자	전세계	2.9	11.3	6.1	6.0	4.7	7.2	5.2	6.4	6.9
		25.5 (2.9)	26.9 (5.4)	30.3 (12.5)	115.5 (18.5)	120.0 (3.8)	108.9 (-9.2)	141.1 (15.4)	146.9 (4.1)	139.2 (-5.2)
	증가율									
	일본	-4.2	-3.9	-3.2	-14.3	-8.0	-7.4	-9.6	-6.0	-5.3
	중국	2.9	8.0	5.6	8.5	8.4	4.6	6.7	8.3	4.9
기계	대만	5.3	7.2	4.8	-6.8	5.8	-8.4	-5.0	6.0	-6.2
	전세계	0.4	5.9	3.7	3.9	5.2	4.2	2.5	5.5	4.0
		37.6 (-5.7)	37.1 (-1.2)	41.7 (12.4)	71.4 (-3.0)	79.3 (11.1)	78.4 (-1.1)	108.9 (-3.9)	116.4 (6.9)	120.1 (3.2)
	증가율									
	일본	-10.1	2.4	-8.2	-10.7	0.9	-5.3	-10.5	1.4	-6.3
금속/광물	중국	10.3	11.7	7.6	0.0	3.3	-3.0	1.1	4.3	-1.7
	대만	-3.8	7.6	1.8	1.7	5.7	-8.1	0.1	6.2	-5.3
	전세계	0.2	9.6	0.6	-1.7	5.2	-1.2	-1.2	6.3	-0.7
		15.4 (-0.4)	19.5 (26.1)	19.5 (0.2)	42.5 (-6.3)	59.3 (39.8)	50.6 (-14.6)	57.9 (-4.8)	78.8 (36.1)	70.2 (-11.0)
	증가율									
	일본	-4.9	-6.3	-5.3	-11.3	2.6	-10.6	-8.9	-0.8	-8.6
	중국	6.2	6.3	5.1	-3.4	21.7	-4.7	2.8	11.4	1.5
	대만	0.5	3.2	4.9	-5.6	23.4	-3.0	-2.4	12.4	1.0
	전세계	2.6	4.5	-1.3	-3.9	9.1	-13.0	-1.9	7.6	-9.3

주: ()는 전년동기비 증가율, WTO 산업분류 바탕 재분류
 자료: USITC(<http://dataweb.usitc.gov/>)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 산업의 FTA 혜택별 대미 수출 현황(미국의 수입)② 〉

		FTA 수혜품목(억 달러, %)			FTA 비수혜품목(억 달러, %)			전체(억 달러, %)		
		2년차	3년차	4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화학제품		22.4	25.0	26.4	9.1	15.2	16.1	31.5	40.1	42.5
		(17.6)	(11.2)	(5.9)	(-35.4)	(67.5)	(6.1)	(-4.9)	(27.4)	(5.9)
	증가율									
	일본	-3.8	3.4	-18.7	4.5	-4.6	8.6	-0.9	0.4	-8.9
	중국	5.3	5.2	1.4	-4.1	8.0	3.7	3.2	5.8	1.9
기타제조업	대만	3.5	8.0	2.1	10.6	31.6	-5.0	4.8	12.5	0.5
	對세계	2.8	4.0	-0.3	-0.6	9.4	8.5	1.1	6.8	4.3
		7.1	7.8	7.7	17.6	18.9	20.7	24.7	26.7	28.4
		(14.6)	(10.9)	(-1.8)	(13.4)	(7.0)	(9.8)	(13.8)	(8.1)	(6.4)
	증가율									
석유제품	일본	0.6	-2.2	-5.7	-1.8	-4.3	3.5	-0.8	-3.4	-0.5
	중국	5.5	4.3	7.8	0.4	5.2	10.6	2.2	4.9	9.6
	대만	2.8	9.2	10.1	-3.1	3.2	11.2	-1.2	5.2	10.8
	對세계	3.4	4.7	3.7	3.6	2.7	8.4	3.5	3.4	6.9
		28.3	28.9	27.9	-	-	-	28.3	28.9	27.9
가죽/고무/신발		(-3.7)	(1.9)	(-3.2)	-	-	-	(-3.7)	(1.9)	(-3.2)
	증가율									
	일본	13.0	-24.3	27.1	-	-	-	13.0	-24.3	27.1
	중국	57.0	93.6	15.0	-	-	-	57.0	93.6	15.0
	대만	-91.8	87.6	440.9	-	-	-	-91.8	87.6	440.9
섬유/의류	對세계	-11.2	-10.0	-45.9	-	-	-	-11.2	-10.0	-45.9
		15.7	15.5	17.2	3.1	3.6	3.1	18.8	19.0	20.3
		(-14.7)	(-1.8)	(11.3)	(-15.7)	(16.6)	(-13.1)	(-14.9)	(1.3)	(6.7)
	증가율									
	일본	-9.2	-2.7	0.7	-3.6	-5.2	-7.4	-8.4	-3.1	-0.5
목재/종이	중국	4.2	2.4	-5.0	-1.2	4.0	-2.1	3.5	2.6	-4.7
	대만	1.3	4.6	16.1	-18.1	3.5	14.5	-2.8	4.4	15.8
	對세계	3.8	4.5	1.8	-8.8	0.1	-1.9	0.9	3.6	1.1
		13.0	13.2	13.0	1.3	1.3	1.3	14.3	14.5	14.3
		(1.3)	(1.6)	(-1.6)	(-4.9)	(1.2)	(-2.8)	(0.7)	(1.5)	(-1.7)
농수산물	증가율									
	일본	-8.9	3.9	5.6	-5.3	10.2	-3.5	-8.3	5.0	3.9
	중국	2.6	0.7	3.6	3.3	10.1	10.3	2.6	1.0	3.9
	대만	-2.8	2.8	-0.4	14.5	15.4	9.3	-1.5	3.9	0.5
	對세계	3.4	2.8	4.0	4.8	8.7	5.6	3.5	3.0	4.1
농수산물		0.1	0.1	0.0	8.1	9.0	8.0	8.1	9.1	8.1
		(16.6)	(22.2)	(-31.8)	(11.3)	(11.3)	(-10.5)	(11.3)	(11.4)	(-10.7)
	증가율									
	일본	-6.2	-8.9	4.1	-14.4	2.0	-4.8	-14.3	1.8	-4.7
	중국	10.5	10.9	9.5	4.4	5.8	10.0	5.0	6.4	10.0
농수산물	대만	-6.3	8.5	31.5	-2.4	7.3	9.0	-2.5	7.3	9.6
	對세계	12.2	9.8	11.0	6.9	6.8	4.5	7.3	7.0	5.1
		4.3	4.6	5.2	11.1	9.8	12.6	15.4	14.4	17.8
		(16.8)	(7.4)	(12.9)	(25.6)	(-11.8)	(28.8)	(23.0)	(-6.5)	(23.7)
	증가율									
농수산물	일본	-4.9	-0.6	7.0	-9.5	2.7	5.9	-8.9	2.3	6.1
	중국	2.8	0.1	9.0	0.4	2.9	-5.2	1.1	2.2	-1.5
	대만	10.1	5.3	-0.4	9.5	4.9	12.5	9.6	5.0	10.5
	對세계	4.1	5.9	3.4	3.6	8.6	3.1	3.8	7.6	3.2

주: ()는 전년동기비 증가율, WTO 산업분류 바탕 재분류
 자료: USITC(<http://dataweb.usitc.gov/>)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3. FTA 활용률 분석

- 한미 FTA 수출 활용률⁶⁾은 발효 2년차인 2013년부터 70% 이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보이는 가운데 2015년 수출 활용률은 71.1%를 기록
- FTA 수출 활용률은 발효 1년차(2012년)에 52.6%에 그쳤으나 발효 2년차에 70.7%로 18.1%p 증가하였으며, 이후 발효 4년차까지 증가세를 지속
- 2015년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한 총 235.5억 달러 가운데 FTA를 활용하여 수출한 금액은 167.5억 달러로 71.1%의 활용률을 나타냄
- FTA 활용 수출액은 발효 1년차 109.6억 달러에 그쳤으나 2015년에는 167.5억 달러를 기록하며 연평균 15.2% 증가

〈 산업별 FTA 활용액 및 활용률 (미국의 대한 수입) 〉

(단위 : 억 달러, %)

	2012년(1년차)		2013년(2년차)		2014년(3년차)		2015년(4년차)	
	활용액	활용률	활용액	활용률	활용액	활용률	활용액	활용률
전체	109.6	52.6	150.2	70.7	160.0	71.4	167.5	71.1
수송기계	22.1	57.0	35.1	81.7	38.2	83.6	39.5	84.9
기계	20.2	50.8	25.6	68.2	25.8	69.5	28.7	68.6
화학제품	11.2	58.8	18.2	80.9	20.9	83.9	22.2	84.2
전기전자	11.9	47.9	16.3	63.7	18.1	67.3	20.3	67.0
가죽/고무/신발	12.9	70.2	15.0	95.4	14.8	95.6	16.5	95.8
금속 및 광물	8.7	55.8	12.1	78.3	14.5	74.3	14.4	73.8
섬유 및 의류	7.2	55.7	9.3	71.1	9.6	72.8	9.7	74.9
석유제품	10.6	35.9	10.7	37.9	9.8	33.9	7.6	27.3
기타 제조업품	2.8	44.7	4.7	66.2	5.0	63.3	5.0	65.1
농수산물	2.1	57.4	3.2	74.8	3.3	72.6	3.6	69.2
목재 및 종이	0.0	52.9	0.0	63.8	0.0	66.0	0.0	69.1

자료: USITC(<http://dataweb.usitc.gov/>)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6) FTA 수출 활용률은 FTA 수혜가능품목에 대한 상대국의 수입총액에서 실제 FTA 특혜 관세 혜택을 받은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함

■ FTA 수출 활용률은 산업별로 상이한 추세를 나타내며 수송기계, 화학제품, 가죽/고무/신발 등의 분야에서 평균 활용률을 상회하여 FTA 활용을 주도

- (수송기계) 수송기계의 FTA 활용률은 2012년 57.0% → 2013년 81.7% → 2014년 83.6% → 2015년 84.9%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자동차부품의 높은 FTA 활용에 기인

－ 자동차 부품(HS 8708)의 2.5%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되어 38.5억 달러의 한국산 부품이 FTA를 활용하여 미국에 수출

- (화학제품) 2015년 화학제품의 FTA 활용률은 84.2%로 22.2억 달러가 FTA를 통해 수출되었음

- (가죽/고무/신발) 자동차용 고무 타이어(HS 401110)의 FTA 활용률은 99.5%에 달했는데 이는 0.8%(MFN 4%)의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아 11.1억 달러가 수출된 데 기인

【 참고 】 실제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품목수의 변화

-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지난 4년간 실제 FTA를 적용하여 미국으로 수출된 품목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시현
- － 실제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품목수는 2012년 3,521개 → 2013년 ,3795개 → 2014년 3,829개 → 2015년 3,890개로 집계됨(미국 HS 코드 10단위 기준)
- － 우리 기업의 FTA 활용이 본격화되고 발효 4년차인 지난해 관세 인하 폭이 확대되어 신규 FTA 활용이 늘어난 것으로 평가됨

Ⅲ. 한미 FTA 이후 대미 수입 현황

1. 총괄

■ 한미 FTA 발효 4년차인 2015년 대미 수입은 전년 대비 2.8% 감소한 440.2억 달러 기록

- 수입 감소는 상위 수입 품목인 곡류(-12.2%), 사료(-32.4%), 의약품(-2.5%), 기타 화학공업제품(-12.6%)의 감소 영향이 컸음
- 반면 승용차, LPG, 선박용 부품 등의 수입이 급증한 가운데 과실류, 로얄 제리, 견과류 등 일부 농산물은 수입이 꾸준히 증가
- 육류 수입은 발효 직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4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지난 4년간 연평균 2.0% 소폭 증가

〈 한미 FTA 이후 주요 품목별 대미 수입현황 〉

(단위 : 억 달러, %)

품목명	2011년 (발효 전)	2015년 (4년차)		4년간 연평균 증가율	품목명	2011년 (발효 전)	2015년 (4년차)		4년간 연평균 증가율
	금액	금액	증가율			금액	금액	증가율	
집적회로 반도체	38.4	37.5	-1.6	-0.6	꿀 및 로얄제리	3.0	5.3	9.0	14.9
반도체제조용장비	22.8	19.7	0.2	-3.6	과실류	3.0	4.3	3.2	9.8
항공기	15.0	19.6	162	6.9	광학기기 부품	2.9	4.3	22.6	9.9
항공기 부품	13.6	13.1	7.0	-1.0	화장품	3.1	4.1	-3.4	7.5
가축육류	11.6	12.6	7.7	2.0	소가죽	4.4	4.0	-15.0	-2.0
승용차	3.5	12.1	32.6	36.6	선박용 부품	1.4	3.9	28.4	28.9
사료	18.3	10.2	-32.4	-13.6	자동차 부품	4.3	3.9	1.0	-2.8
의약품	6.1	10.1	-2.5	13.4	견과류	1.7	3.7	7.6	21.5
합성수지	8.1	9.3	-4.5	3.4	의료용 전자기기	4.0	3.7	6.7	-1.7
LPG	0.01	7.4	121.5	433.3	분석시험기	3.8	3.5	3.1	-1.6
곡류	10.3	6.1	-12.2	-12.3	의료용 기기	3.5	3.4	9.2	-0.3
계측기	4.4	5.9	5.4	7.5	밸브	2.6	3.2	-13.9	5.2
기타화학공업제품	5.3	5.7	-12.6	1.7	배전 및 제어기	2.4	3.1	-10.8	7.2
원동기	7.2	5.5	-20.2	-6.5	발전기	1.8	3.0	10.0	14.2
펌프	5.0	5.5	-12.2	2.6	전체	445.7	440.2	-2.8	-0.3

주: MTI 4단위 기준 상위 주요 수입품(무관세 품목 또는 원자재를 제외한 주요 수입품),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2. 승용차

■ FTA 관세 인하 효과와 수입 자동차 선호 확대로 승용차 수입이 지난 4년간 연평균 36.6% 증가

- 발효 이후 매년 두 자릿수 수입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체 대미 수입 증가를 주도해왔으며 지난해에는 32.6% 증가하여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 2015년 중 미국산 승용차의 국내 수입시장 점유율은 EU에는 미치지 못하나 일본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섬

- － 발효 이후 미국으로부터의 승용차 수입 점유율은 금액기준 2.6%p, 대수기준 3.7%p 증가하여 일본의 점유율을 역전

- 특히 발효 5년차인 올해부터 관세가 철폐*되어 향후 수입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한미 FTA는 대미 승용차 수입에 대해 한국의 관세율 8%를 발효 즉시 4%로 인하하고 이를 4년간 유지한 후 발효 5년차인 2016년부터 관세가 철폐됨

〈 승용차의 대미 수입 동향 〉

(단위 : 억 달러, 천 대, %)

		금액						대수					
수입국		2011년 (발효 전)	2012년 (1년차)	2013년 (2년차)	2014년 (3년차)	2015년 (4년차)	4년간 변화	2011년 (발효 전)	2012년 (1년차)	2013년 (2년차)	2014년 (3년차)	2015년 (4년차)	4년간 변화
전 세계		36.3	45.7	55.7	80.9	99.4	28.6	115	151	188	261	327	29.8
		(25.0)	(25.9)	(22.0)	(45.1)	(22.9)		(13.8)	(30.9)	(24.8)	(38.7)	(25.4)	
미국		3.5	6.9	7.8	9.1	12.1	36.6	13	28	31	34	48	39.4
		(21.5)	(97.3)	(13.9)	(16.9)	(32.6)		(0.9)	(116.6)	(12.4)	(7.7)	(43.9)	
점유율	미국	9.6	15.0	14.0	11.3	12.2	+2.6%p	11.1	18.4	16.6	12.9	14.8	+3.7%p
	E U	74.0	71.2	68.8	73.9	79.3	+5.4%p	65.4	63.3	58.8	63.9	68.7	+3.3%p
	일본	11.7	10.4	13.8	11.8	6.6	-5.1%p	15.3	12.6	19.2	18.3	12.6	-2.7%p
	기타	4.8	3.5	3.4	3.0	1.9	-2.9%p	8.1	5.6	5.5	4.9	3.9	-4.3%p

주: 1. MTI 7411 기준(단, 대수 통계는 HS8703.10을 제외한 수치임)

2. '4년간 변화'에 대해 금액은 2011년~2015년 연평균 증가율(%), 점유율은 2011년~2015년 변화(%p)를 산출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3. 농축수산물

■ 지난해 미국산 농축수산물 수입액은 전년 대비 10.3% 감소한 68.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수입물량은 19.0% 감소

● 전체 수입액 감소는 곡물, 사료의 수입량 감소가 주 원인임

- 옥수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단가*와 수입선 전환의 영향으로 수입량이 전년 대비 54.8% 급감하였으며 사료 수입량도 수입선 전환의 영향으로 24.5% 감소

* 2015년 국별 옥수수 수입단가(\$/kg): 미국(0.245), EU 평균(0.218), 러시아(0.209)

- 밀 수입량은 2.3% 증가했으나 단가 하락으로 인해 수입액이 7.2% 감소

● 반면 과일류, 견과류, 주류 수입은 발효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 체리는 지난해 미국 작황 부진의 영향으로 수입량이 7.7% 감소하였으나 오렌지 수입이 12.8% 상승하며 회복세를 보였고 레몬 수입량도 21.1% 급증하여 과일류 수입 증가를 주도

- 견과류는 아몬드 수입단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수입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입액이 증가했으며, 주류는 맥주 수입량이 18.7% 늘어나면서 수입액이 증가

● 일부 품목의 수입 증가는 소비자 선택의 다양성 확보, 수입 품목 간 경쟁 심화 등을 통해 소비자 후생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FTA 이후 수입이 늘어난 농산물 가운데 바닷가재, 아보카도, 와인 등 국내 생산이 이뤄지지 않거나 그 비중이 크지 않은 품목들이 이에 해당

〈 한미 FTA 이후 주요 농축수산물의 대미 수입현황 〉

(단위 : 백만 달러, 만 톤, %)

품목명	금액						중량					
	2011년 (발효 전)	2014년 (3년차)		2015년 (4년차)		4년간 연평균	2011년 (발효 전)	2014년 (3년차)		2015년 (4년차)		4년간 연평균
	금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증가율	중량	중량	증가율	중량	증가율	증가율
농축수산물	7,329.7	7,611.8	33.7	6,828.6	-10.3	-1.8	1,133.9	1,086.6	101.4	880.6	-19.0	-6.1
농산물	4,988.5	4,911.7	40.5	4,226.9	-13.9	-4.1	1,022.3	995.2	121.7	807.8	-18.8	-5.7
곡류	1,034.3	697.2	11.7	612.1	-12.2	-12.3	262.2	216.4	50.6	175.8	-18.7	-9.5
밀	511.8	385.7	-11.2	357.9	-7.2	-8.6	128.5	111.0	-2.7	113.6	2.3	-3.1
옥수수	396.6	284.3	589.7	112.9	-60.3	-27.0	118.1	102.1	1,066.0	46.2	-54.8	-20.9
대두	326.0	379.0	2.0	287.1	-24.3	-3.1	55.6	61.0	10.1	53.2	-12.9	-1.1
과실류	296.2	418.1	4.2	431.2	3.2	9.8	18.1	16.0	-24.2	17.4	8.2	-1.0
체리	45.5	123.1	40.6	119.9	-2.6	27.4	0.5	1.3	46.4	1.2	-7.7	26.4
오렌지	161.9	156.3	-16.1	163.0	4.3	0.2	13.6	9.1	-37.4	10.3	12.8	-6.7
레몬	8.9	25.5	7.0	33.2	30.3	39.0	0.6	1.1	-15.2	1.3	21.1	19.5
견과류	171.5	346.3	22.8	372.6	7.6	21.4	2.5	3.6	6.7	3.5	-2.8	8.6
호두	81.3	122.7	13.9	129.2	5.3	12.3	0.9	1.1	1.3	1.2	8.6	5.5
아몬드	84.7	208.5	29.5	230.6	10.6	28.4	1.5	2.4	10.2	2.2	-7.1	9.8
식물성유지	47.1	29.2	-57.1	52.0	78.3	2.5	3.1	1.7	-66.0	4.3	148.2	9.1
대두유	32.2	12.7	-76.9	32.5	155.5	0.2	2.6	1.4	-71.1	3.8	181.2	10.6
유지가공품	35.1	32.4	-6.5	31.1	-4.1	-3.0	0.4	0.2	54.6	0.2	-26.8	-22.2
박류	216.2	325.4	23.8	178.1	-45.3	-4.7	67.6	91.1	47.4	72.6	-20.3	1.8
사료	1,832.4	1,510.5	257.9	1,020.7	-32.4	-13.6	570.3	544.5	385.6	410.9	-24.5	-7.9
소스류	21.8	29.9	3.7	30.7	2.8	9.0	1.2	1.4	0.9	1.4	-0.8	4.7
기호식품	254.9	386.1	3.6	396.0	2.6	11.6	8.2	16.5	40.8	20.4	23.7	25.6
커피류	32.7	44.6	-5.7	45.1	1.1	8.4	0.3	0.4	-3.6	0.3	-7.9	4.9
코코아조제품	34.7	52.8	30.7	47.4	-10.3	8.1	0.6	0.7	12.5	0.7	-0.3	5.5
연초류	11.7	37.3	-10.9	30.8	-17.2	27.3	0.2	0.4	-20.5	0.4	-13.1	24.4
주류	29.3	88.3	107.7	118.7	34.4	41.8	1.7	7.1	253.8	11.8	66.1	63.1
맥주	5.6	7.3	8.7	9.1	24.4	13.0	0.9	0.9	-3.8	1.1	18.7	4.7
포도주	12.3	21.2	7.7	23.1	8.9	16.9	0.3	0.3	-11.9	0.3	-3.8	5.1
당류	20.8	27.5	14.0	21.6	-21.5	0.9	1.6	3.0	51.5	2.4	-19.8	10.5
과일주스	59.0	70.2	-32.5	75.5	7.7	6.4	2.3	3.1	-25.1	3.2	2.4	8.5
농산가공품	136.0	224.4	24.1	212.0	-5.5	11.7	3.2	4.4	21.1	4.3	-3.8	7.8
사탕과자류	29.5	56.1	44.0	53.0	-5.5	15.8	0.6	0.9	39.9	0.9	-5.3	8.2
빵	28.5	49.4	10.4	43.8	-11.5	11.3	0.8	1.0	5.0	1.0	-7.3	5.1
가공농산가공품	58.8	100.5	23.7	95.5	-4.9	12.9	1.4	2.1	26.7	2.0	-2.6	10.5
육류	1,322.0	1,299.1	30.3	1,302.5	0.3	-0.4	39.0	30.8	14.6	28.6	-7.2	-7.5
쇠고기	653.0	764.4	32.3	802.0	4.9	5.3	12.8	11.2	10.1	11.5	3.4	-2.6
돼지고기	509.9	403.3	28.7	455.4	12.9	-2.8	16.5	12.1	8.4	15.1	24.1	-2.2
닭고기	127.7	96.4	35.2	15.5	-83.9	-40.9	8.7	6.5	43.3	1.1	-83.4	-40.6
축산부산물	45.5	4.2	-45.8	4.7	11.1	-43.3	3.9	0.1	-88.2	0.1	3.9	-65.7
육류가공품	24.8	28.0	14.1	29.2	4.1	4.2	0.8	0.8	4.8	0.9	3.8	2.0
로알제리	301.6	481.2	21.7	523.9	8.9	14.8	1.5	1.4	4.9	1.4	-2.3	-1.3
낙농품	213.0	385.0	39.6	289.5	-24.8	8.0	5.8	9.2	20.6	7.8	-15.8	7.4
치즈	140.2	301.3	59.9	250.7	-16.8	15.6	3.2	6.4	50.1	5.5	-14.1	14.0
수산물	154.7	236.4	7.5	245.9	4.0	12.3	5.4	7.1	13.2	7.7	7.8	9.3
바닷가재	0.8	41.0	93.4	37.7	-8.1	162.4	0.0	0.2	87.9	0.2	-17.1	150.0
어육, 어란	56.4	79.7	17.6	83.4	4.6	10.3	2.0	2.8	10.6	2.9	4.3	10.3

주: MTI 전 단위 기준 주요 수입품,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 쇠고기, 돼지고기 수입량은 전년 대비 각각 3.4%, 24.1% 증가

- 쇠고기는 수입단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도축두수 감소로 인한 한우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수입이 증가

* 국내 한우 도축두수(천 마리): 845('12년)→ 962('13년)→ 921('14년)→ 882('15년)

- 돼지고기는 전년 대비 수입단가 하락(3.22\$/kg→ 2.97\$/kg)의 영향으로 수입량은 24.1%, 수입액은 12.9% 증가

- 반면 미국에 비해 호주, EU로부터의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미국의 점유율은 소폭 하락

– 한국이 미국의 경쟁국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EU, 칠레와의 FTA를 모두 발효하여 수입시장을 둘러싼 이들 국가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다

- 가금육(닭고기) 수입은 지난해 국내 공급 증가로 총 수입규모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조류독감 발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미국산 수입이 중단 되어 전년 대비 83.4% 감소한 1.1만 톤 수입에 그침

【 참고 】 한국의 육류 수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만 톤, %)

품목	수입국	금액					중량				
		2011년 (발효 전)	2012년 (1년차)	2013년 (2년차)	2014년 (3년차)	2015년 (4년차)	2011년 (발효 전)	2012년 (1년차)	2013년 (2년차)	2014년 (3년차)	2015년 (4년차)
쇠 고 기	전 세계	1,678.0 (41.5)	1,410.1 (-16.0)	1,542.7 (9.4)	1,847.5 (19.8)	2,007.8 (8.7)	34.4 (18.0)	29.9 (-13.2)	30.1 (0.6)	31.5 (4.8)	33.1 (5.2)
	미국	653.0 (54.9)	522.5 (-20.0)	578.0 (10.6)	764.4 (32.3)	802.0 (4.9)	12.8 (38.6)	10.6 (-17.6)	10.1 (-4.1)	11.2 (10.1)	11.5 (3.4)
	호주	50.6	53.4	54.2	51.1	54.2	49.4	52.1	55.1	54.8	57.1
	미국	38.9	37.0	37.5	41.4	39.9	37.3	35.4	33.7	35.4	34.8
	뉴질랜드	9.4	8.4	7.4	6.5	5.0	11.5	11.0	10.1	8.5	7.0
	캐나다	0.0	0.5	0.7	0.8	0.4	0.0	0.5	0.8	0.8	0.4
돼 지 고 기	전 세계	1,583.4 (121.0)	1,206.6 (-23.8)	910.9 (-24.5)	1,255.7 (37.9)	1,423.5 (13.4)	52.4 (71.5)	40.3 (-23.2)	32.2 (-20.0)	39.4 (22.3)	49.4 (25.4)
	미국	509.9 (177.1)	391.3 (-23.3)	313.4 (-19.9)	403.3 (28.7)	455.4 (12.9)	16.5 (101.2)	13.1 (-20.3)	11.2 (-14.7)	12.1 (8.4)	15.1 (24.1)
	미국	32.2	32.4	34.4	32.1	32.0	31.4	32.6	34.8	30.8	30.5
	EU	43.8	43.0	43.3	50.9	50.3	41.6	40.2	39.9	50.5	51.3
	칠레	7.5	10.4	11.2	7.5	8.7	8.0	9.4	9.5	6.4	6.4
	캐나다	14.1	11.7	8.8	6.6	6.6	16.8	15.5	13.5	9.7	9.5

주: MTI 022110, 022120 기준, ()는 전년동기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IV. 한미 FTA 수출 유망품목

- FTA 관세철폐 혜택을 바탕으로 미국의 수입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승용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용 보일러 등의 수출 증가가 기대됨
- (수송기계) 대미 수출의 25.1%를 차지하는 승용차에 대한 관세가 2016년 부터 철폐되고 부품 수입 수요가 증가세를 보여 수출 확대를 주도할 전망

【 참고 】 2016년 1월 대미 승용차 수출 현황(미국 수입통계 기준)

- 관세철폐(2.5% → 0%)가 시작된 2016년 1월 대미 승용차 수출은 주력 품목인 중형차 수출이 32.8% 증가하는 등 FTA 효과를 바탕으로 대미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 수출 활용률은 소형차 95.5%, 중형차 54.1%, 대형차 47.6%를 기록해 관세철폐 초기부터 높은 활용률을 기록 중임
- FTA를 통한 수출확대 효과가 가시화될 경우 아직 미국이 FTA를 발효하지 않은 독일,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점유율 확대도 기대됨

< 2016년 1월 한국의 대미 승용차 수출 현황 >

(단위 : 억 달러, %, %p)

품목	2015.1월		2016.1월				
	금액	점유율(a)	금액	증가율	점유율(b)	점유율 변화(b-a)	FTA 활용률
소형차 (1,000cc-1,500cc)	1.8	28.7	2.6	41.1	33.7	5.0	95.5
중형차 (1,500cc-3,000cc)	9.5	14.7	12.6	32.8	16.1	1.4	54.1
대형차 (3,000cc 초과)	3.4	8.0	2.8	-19.6	6.7	-1.3	47.6
기타 승용차	0.1	18.3	0.3	199.0	51.3	33.0	70.0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자료: USITC

- (기계) 산업용 보일러, 타이어용 성형기, 밸브류, 열교환기 등 점유율 10% 이상의 수출 주력 품목에 대한 수입수요 확대가 수출 증가로 이어질 전망
- (섬유) 4.3~8%의 관세가 철폐되어 중국, 베트남 등 신흥개도국 제품과의 가격경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화학제품) 미국이 높은 관세(6.5%)를 부과하고 있는 유기화학품(HS29류)에 대해 한국은 FTA를 통한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여 점유율 확대가 예상됨

- (기타) 고무 형재, 식물성 캡슐, 버섯 등 여타 제품도 관세철폐 혜택을 바탕으로 경쟁국 대비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 】 대미 수출 유망품목 선정

- 한미 FTA 수혜품목 중 관세율, 미국의 수입 규모 및 증가세 등을 고려하여 선정
 - ① FTA 발효로 2016.1.1.일까지 관세가 철폐된 품목
 - ② 2015년 미국의 전 세계 수입 1,000만 달러 초과 품목
 - ③ 미국의 최근 3년간(2012~2015년) 연평균 수입 20% 이상 증가 품목
 - ④ 2015년 미국의 대한 수입 100만 달러 초과 품목

〈 한미 FTA 수출 유망품목 〉

(단위 : 억 달러, %)

	HTSUS	품목명	MFN	전 세계		점유율		
				금액	연평균	한국	일본	중국
수송기계	8703220000	승용차(1,000cc 초과 1,500cc 이하)	2.5%	0.2	24.5	29.6	19.6	0.0
	8708106010	자동차 부품(타발)	2.5%	0.4	47.9	9.6	2.1	0.8
	8708998115	자동차부품(더블형 플랜지 허브유닛)	2.5%	2.4	28.0	11.1	0.4	43.1
	8703230052	스테이션 왜건(내부 3.4m ³ 초과)	2.5%	1.5	22.9	16.4	28.0	0.0
	8708508500	자동차 부품(하프축)	2.5%	0.2	25.3	16.8	23.4	4.6
기계	8481809035	기타 기기(공기압 작동기로 작동)	2.0%	1.6	24.1	3.3	9.4	5.3
	8402900010	열교환기	4.3%	3.5	35.1	34.1	0.3	5.8
	8477510010	공기주입 타이어용 성형기	3.1%	3.9	34.6	8.7	16.9	6.2
	8481200020	솔레노이드식 밸브(수력밸브)	2.0%	2.5	23.6	23.3	37.8	2.9
	8481200050	기타 밸브(수력밸브)	2.0%	0.1	34.6	14.1	14.0	1.3
	8402110000	대형 증기발생보일러(시간당 45톤 초과)	5.2%	0.4	193.0	86.5	0.0	0.0
	8401400000	원자로의 부분품	3.3%	0.2	40.6	75.0	0.1	0.0
	8402200000	과열수 보일러	3.3%	3.0	31.7	33.9	0.0	0.0
	8443192000	날염 인쇄 기계류	2.6%	0.4	31.1	11.7	0.1	4.4
	8415200000	공기조절기(차량 내 탑승자용)	1.4%	0.2	26.5	6.2	0.1	30.2
섬유	5402440040	합성필라멘트사(탄성사 기타)	8.0%	0.2	45.6	71.6	0.5	3.5
	5402440005	합성필라멘트사(모노필라멘트의 것)	8.0%	0.2	32.7	15.0	8.4	41.5
	5503400000	폴리프로필렌 합성 스테이플 섬유	4.3%	0.8	39.1	7.2	5.7	2.4
전기기기	8528711000	통합형 영상 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	3.9%	70.2	40.4	73.2	0.0	8.1
	8501206000	기타 교류, 직류 겸용 전동기(37.5와트 초과)	2.4%	0.5	26.9	36.7	2.9	15.9
	8507908000	축전기 기타 부분품	3.4%	2.2	95.4	20.8	68.6	3.7
화학제품	2917391500	이소프탈산	6.5%	365.2	44.3	52.8	7.6	0.1
	2920902000	기타 무기산의 방향 에스테르	6.5%	5.7	25.7	50.0	1.6	24.7
	2909306000	방향족 화합물	5.5%	0.1	20.3	7.1	12.4	22.1
기타	4008196000	고무 형재(셀룰러 고무의 것)	3.3%	1.0	54.3	28.6	5.2	2.9
	8207504060	기타 드릴용 부분품(금속 절단용)	8.4%	6.5	34.1	8.5	8.3	13.2
	7020006000	기타 유리제 제품	5.0%	0.3	26.1	26.6	14.9	16.8
	9602005010	식물성 캡슐	2.7%	0.4	47.0	5.0	0.0	11.2
	0709599000	버섯(양송이 제외)	8.8¢/kg+20%	0.2	31.5	38.3	0.0	28.3

주: 증가율은 최근 3년간(2012~2015년) 연평균 증가율
 자료: USITC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V. 결론 및 시사점

- 세계 경기 둔화, 유가 하락 등 악화된 대외 여건 속에서도 2015년 한국의 대미 수출은 FTA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출 성과를 달성함
- 한미 FTA 발효 4년차인 2015년 FTA 수혜품목의 수출은 5.1%, 비수혜품목의 수출은 2.3% 증가해 경쟁국에 비해 양호한 수출 성과를 보임(미국 수입통계 기준)
 - FTA 수혜품목 수출이 전년 대비 5.1% 증가해 일본(-7.8%), 중국(4.2%) 등 주요 경쟁국의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였으며 미국 전체 증가율(-11.9%) 보다 크게 앞섬
- 산업별로 FTA 수혜품목의 수출은 전기전자(12.5%), 기계(12.4%), 고무(11.3%), 농수산물(12.9%) 산업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 2015년 대미 수출은 업체수 및 품목수가 증가하여 FTA가 우리 수출의 외연적 확대에 기여
- 한미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하여 15년 만에 가장 높은 점유율(3.20%)을 기록함
-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FTA 발효 이후 상승세를 지속함에 따라 2000년(3.31%)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경쟁국인 일본과의 점유율 격차는 사상 최저치(2.65%p)까지 축소됨
- FTA 수출 활용률은 발효 2년차부터 70% 이상을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지난해 활용률은 71.1%로 FTA를 활용하여 167.5억 달러가 미국으로 수출됨

- FTA 활용률은 산업별로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자동차부품, 화학제품, 고무 타이어의 FTA 활용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대미 수입은 승용차, LPG 등 일부 품목의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품목인 곡물, 사료, 의약품 등의 수입이 줄어들며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함
 - 지난해 승용차(32.6%), LPG(121.5%), 선박용 부품(28.4%)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한 가운데 발효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의약품 수입 (-2.5%)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올해부터 대미 승용차 수입관세가 철폐되어 수입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농축수산물은 곡물, 사료의 수입이 줄어들며 전년 대비 19.0% 감소한 가운데 국내 생산이 부족한 품목의 수입 증가가 두드러져 국내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임
 - 아보카도(33.8%), 바닷가재(162.4%), 와인(16.9%) 등은 지난 4년간 두 자릿수 이상의 수입 증가율을 기록함
- 올해에는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예상됨에 따라 한미 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음
 - 한국 대미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승용차의 2.5% 관세가 올해부터 철폐됨에 따라 승용차의 대미 수출 확대 기대
 - 미국 승용차 수입시장에서 일본과의 점유율 격차가 발효 전 17.4%p에서 지난해 11.1%p로 좁혀진 가운데 올해부터 시작되는 관세인하는 승용차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
 - 특히 경쟁관계인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TPP 발효 이전에 한미 FTA를 활용한 시장 선점 노력이 필요